

심똥(始興) 천신님(天神-). 돌아 삼신선(三神仙)¹⁾ 느려²⁾ 삼백관(山百官). 올라 궁예청(宮女-) 시
네청(侍女-)정남청(丁男-).

이 내 국(國)도 제우멍³⁾ 놈의 국(他國) 세벤(世變) 맥이⁴⁾ 가자. 쉰다섯 제군문(五十五諸軍門)
희어나고⁵⁾ 희여들고 천신님(天神-).

송갑스(宋甲士)

양태⁶⁾ 상궁(上供) 군문부리⁷⁾ 가고 보니 녁매전이⁸⁾ 혈허여 영추모초단(英綃毛綃緞) 혈값 주어
전배독선허여⁹⁾ 심똥(始興) 송낙코지¹⁰⁾로 베를 부찌니. 송갑스(宋甲士) 똥애기가

『아바님, 무신¹¹⁾ 물건 허연 옴데가?』

『느¹²⁾ 녁매무색¹³⁾ 좋아하기로 녁매무색하고 오랏노라.¹⁴⁾』

『아바님, 이게 어떤 말입네까? 국상(國喪)이 났읍네다. 우이¹⁵⁾ 알민 목을 굴릴 듯¹⁶⁾ 흡네다.
땅을 파고 묻읍서.』

지애독(瓦瓮)에 담아 놓고 만년(萬年) 폭낭¹⁷⁾ 알에 묻었더니, 얼마 옷이¹⁸⁾ 송갑스(宋甲士)가 병
(病)이 들어 죽을 지경에 뒤편가니, 녁매무색 안네여서¹⁹⁾ 호상(護喪)²⁰⁾ 제물(祭物) 허저 하고 독
두께(瓮蓋)를 올고 보니, 푸린²¹⁾ 무색엔²²⁾ 푸린 만주에미²³⁾ 붉은 무색엔 붉은 만주에미 검은 무
색엔 검은 만주에미가 와시시²⁴⁾ 나와간다. 송갑스(宋甲士) 똥님애기 줌짝²⁵⁾ 놀래연²⁶⁾게 글로²⁷⁾

1) 시흥본향당(始興本鄉堂)의 신들.

2) 신의 계위(階位)의 고하를 「올라」「느려」로 표현함

3) 겨우면서. 힘에 부치면서

4) 막기.

5) 헤어 나고.

6) 갓양태.

7) 미상 지명.

8) 녁매전(塵) 포목(布木)의 뜻으로 쓴 것.

9) 전선독선(全船獨船)하여. 배 하나를 가득히 실어의 뜻.

10) 시흥리(始興里) 해변의 지명.

11) 무슨.

12) 너의.

13) 녁매무색. 물감을 들인 옷감의 뜻.

14) 왔노라.

15) 위가. 상부관서(上部官署)가.

16) 끊길 듯.

17) 팽나무

18) 얼마 없이

19) 가져내어서.

20) 수의(壽衣).

21) 푸른(靑).

22) 녁매무색과 같음.

23) 작은 뱀.

24) 여럿이 나오는 모양 또는 그 소리.

25) 놀라서 멈칫하는 모양.

26) 놀라던데.

27) 그것으로.

병(病)이 되어 남대육대²⁸⁾ 몰라²⁹⁾ 죽을 지경 돼가니 선씨일월(玄氏日月)³⁰⁾신디 문복(問卜)간다.

선씨일월 문복하되

『송갑스(宋甲士) 생경(上京)가고 올 때에 녕매무색에 부떠온³¹⁾ 임신(神)입네다. 기도원성질(祈禱
原情-)³²⁾을 흡서.』

『그 날부떠 암통귀 수통귀³³⁾ 지리에기 양산기³⁴⁾ 나비 줄전을 메여서 원성질(原情-)³⁵⁾을 하는
디, 초공연맞이³⁶⁾가 당하니 죽어가던 송갑스똥님애기 말을 하되

『어느 신주(神主)를 위로(慰勞)하느냐?』

신의성방(神-刑房) 말을 하되

『과연 모르겠읍네다.』

『나 눕는³⁷⁾ 침방(寢房) 안에 금동괘상(金銅櫃床)을 올고 보라. 세양베³⁸⁾와 세미녕이³⁹⁾ 이시니
마은대자(四十五尺) 천신다리⁴⁰⁾로 올로 발고⁴¹⁾ 실로 발고 놀라. 서른대자(三十五尺) 청룡줄⁴²⁾로
놀라. 쑤물대자(二十五尺) 백룡줄로 놀라.』

그 말대로 놀려가니 애기씨가 푹릿푹릿⁴³⁾ 살아나, 글로부떠 한집⁴⁴⁾을 위흡데다.

짐씨(金氏) 허천⁴⁵⁾ 부씨(夫氏) 허천 송씨(宋氏) 허천 두루웨할망⁴⁶⁾ 부씨할망 예레덥술(十八歲)
에 이 당을 메고 전득(轉得)하느디, 부씨상단꺾(夫氏上丹骨) 선씨상단꺾(玄氏上丹骨)에서 7을(秋)
들민⁴⁷⁾ 산뒤(山稻) 혼 말(一斗) 조 혼 말(粟一斗) 콩 혼 말 이겨 주고⁴⁸⁾ 하절(夏節)되민 보리 혼
말 밀 혼 말 녹디(綠豆) 혼 말 이겨 쥔 그걸고 구용도식(救命圖食)하명 살고, 승기(菜蔬)는 큰
물⁴⁹⁾에 승기 씻으려⁵⁰⁾ 오랏당⁵¹⁾ 승키⁵²⁾주민 얻어 먹곡, ㅅㅇ허여⁵³⁾ 그 한집을 모사⁵⁴⁾ 당집(堂

28) 육체(肉體)가 대막대기처럼 야움을 형용하는 말.

29) 말라.

30) 현씨심방(玄氏神房). 지금은 조상신으로 위하고 있음. 조상본풀이 참조.

31) 붙어온.

32) 굿을 하십시오의 뜻.

33) 큰 굿을 할 때 마당에 큰대를 세워 달아매는 기. 대통기에 암컷과 수컷이 있었던 모양임.

34) 큰굿을 할 때 세우는 기류(旗類).

35) 굿을 일컫는 말.

36) 초공맞이. 무조신(巫祖神)을 맞아들여 축원하는 제차(祭次).

37) 눕는.

38) 좋은 베.

39) 좋은 무명.

40) 천신(天神)의 하강하는 다리(橋).

41) 두 팔을 활짝 벌린 길이를 발(한발)이라 하고, 그 「발」로 물건의 길이를 재는 것을 「발다」. 여기서는 천신(天神) 다리인 무명의 울과 실의 길이를 「발」로 재면서 춤추어라. 곧 천신 다리 무명을 두팔에 들어 놀리며 춤추라는 뜻.

42) 청룡(靑龍)줄. 곧 다리인 무명을 청룡(뱀의 뜻)으로 상징하여 표현한 것. 「청룡줄로 놀라」는 말은 그 무명을 뱀으로 가정하여 그것을 두 팔에 들고 놀리며 춤추라는 뜻.

43) 파릇파릇.

44) 당신(堂神)을 일컫는 말.

45) 미상. 이 당의 단골들임.

46) 그 당시 이 당의 메인 심방의 별명. 원뜻은 미치광이 할미란 뜻.

47) 추수를 해들이면의 뜻.

48) 갖다 주고.

49) 시흥리(始興里)의 지명(池名).

50) 씻으려.

字)에 사느디, 갑인(甲寅) 오월(五月) 열나흘날(十四日), 웃넷기(新豊里) 한주 아들⁵⁵⁾ 종다리(終達里) 꾀늬 완⁵⁶⁾ 가다가 당집의 불이 베지근허여⁵⁷⁾시난 들어가 앓아 혼 말 두 말 수작(酬酌)하던 수작 말을 안들으니 돌아들어⁵⁸⁾ 왼곶둥⁵⁹⁾ 쥬여박아 왼곶창(左鼓膜) 돌아져⁶⁰⁾ ㄴ단곶둥⁶¹⁾ 쥬여박아 ㄴ단곶창(右鼓膜) 돌아져, 발로 등(背) 가심(胸) 두르차 할망이 죽읍데다. 곡식(穀食)이명 이복(衣服)이명 멩두멍⁶²⁾ 다 짊어 놓고 불 캥⁶³⁾ 죽엇쟁 흐젠⁶⁴⁾ 햇불로 그시려⁶⁵⁾ 가심(胸)에 문독 불⁶⁶⁾ 살라두고 돌아나 불고, 뒷날(翌日)은 부씨상단꺈(夫氏上丹骨)에서 송기(菜蔬)흐레 오랏단⁶⁷⁾ 『할망, 송기 앓당 먹읍서.⁶⁸⁾』

흔두번을 불러도 데답(對答)이 엇이니 피라곡꺈(必有曲折) 이상하다. 문을 열고 보니 천지 낙매(天地落命)뉘여 죽엇구나.

강훈지⁶⁹⁾를 불러서

『부췌할망 죽어시니 상단꺈(上丹骨)에 거레(去來)하라. 선씨(玄氏) 상단꺈에 거레하라.』

선씨상단꺈에 거레하니

『느가⁷⁰⁾ 당하니니⁷¹⁾ 할망 원췌(怨讐)를 가프라.』

그 날부떠 장광(長廣) 스백리주(四百里周)에 덩기느디, 흐를은 짐씨(金氏) 하신충⁷²⁾신디 오라

『문점(問占)흐레 왔노라.』

『어서 기영흡서.⁷³⁾』

흐멍 내놓는 걸 보난 부씨(夫氏)할망 멩두라.

『이 멩두가 어디서 난 멩두냐?』

『한주아들신디 샅수다.』

51) 왔다가.

52) 채소.

53) 이렇게 하여.

54) 모시어.

55) 사람 이름.

56) 돈을 팔러 왔다가의 뜻이라 함. (갑인년은 유명한 흉년이었으니까 돈 있는 자가 돈을 팔았다 함)

57) 불빛이 희미한 모양. 해어(海魚)의 맛이 좋음도 「베지근」 하다고 함.

58) 달려들어의 뜻.

59) 왼쪽 귀통이. 왼 뺨.

60) 터져의 뜻.

61) 오른쪽 귀통이.

62) 무구(巫具) 신칸, 산판, 요령을 일컬음.

63) 타서. 카다=타다.

64) 죽었다고 하려고.

65) 그슬려.

66) 모닥불. 먼지를 태운 불.

67) 왔다가.

68) 가져다 먹으십시오.

69) 인명. 당시의 당소미(堂小巫).

70) 네가.

71) 당소미(堂小巫). 당에 전속된 소미.

72) 심방의 맨 하위 계급명.

73) 그리하십시오.

『버치지 말라.⁷⁴⁾』

천문(天門) 하나 상잔(床簋) 하나 앓다단⁷⁵⁾ 선씨(玄氏) 상단곶에 바찌니, 선씨 상단곶이 한주아
들 심어단⁷⁶⁾ 귀양정배(定配) 보내고 할마님 원시(怨讐)를 가품데다.

기영⁷⁷⁾한⁷⁷⁾ 물색옷⁷⁸⁾은 입쟁⁷⁹⁾ 한⁷⁹⁾ 이 한집에 먼저 바쳐사⁸⁰⁾ 한⁷⁹⁾ 곡, 부씨할망신디 범(犯)한
죄(罪)로 아픈 병(病)은 가슴에 불이 나고 목에서 극궁내⁸¹⁾가 남네다.

객부미⁸²⁾ 일뤼중저(七日中姐).⁸³⁾ 남도리알⁸⁴⁾ 분두세명주.⁸⁵⁾

점복절⁸⁶⁾ 설입(設立)하던 중(僧)이 절(寺)이 파락(破落)하고 노소(路需)가 엇어 가질 못하니 멀
미상칼귀⁸⁷⁾ 올라 꼭겁⁸⁸⁾ 밋겁⁸⁹⁾한⁸⁹⁾ 한⁸⁹⁾ 단 낙상(落傷)하여 갈디 올디 엇어지니, 요왕또(龍王一)
츠지하여⁹⁰⁾ 한집 뎃상(臺床) 알(下)로 삼천병매(三千兵馬)⁹¹⁾로 들어사 가는 선(船) 일만잠수(一萬
潛嫂) 츠지흡네다.

- 舊左面 漢東里 男巫 許丁花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681-686.

74) 우기지 말라. 거짓말 말아라.

75) 가져다가.

76) 잡아다가.

77) 그리하니까.

78) 무색옷(色衣).

79) 입으려고 하면.

80) 먼저 바쳐야.

81) 그으름 냄새.

82) 시흥리(始興里)의 지명. 칠일당(七日堂)이 있는 곳.

83) 이렛당 신을 일컬음.

84) 시흥리의 지명. 당 소재지.

85) 신명(神名).

86) 성산면 오조리(城山面五照里)에 있었던 절.

87) 구좌면 종달리(舊左面終達里)에 있는 지명.

88) 침당굴.

89) 밋겁. 갈대꽃이 피기 전 그 꽃

90) 바다(漁船, 海女 등)를 차지하였다는 뜻.

91) 하위의 신.